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Study on School Life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eneficiary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

최유경(Yu Kyung Choi)¹, 최인화(In-Hwa Choi)^{2*}

¹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Myongji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there is any difference due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eneficiaries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and a special quality of use about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Additionally, the examination has been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the satisfaction about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self-resp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eneficiaries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meaningful higher scores by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only in the environmental adaptation area among lower areas in school life adaptation due to sex. Due to school year, third-year students showed meaningful high scores in school life adaptation. The satisfaction about programs in each area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eneficiaries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showed a meaningful static relationship with school life adaptation. The insp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bout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and 5 lower areas of school life adaptation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s in the order of adaptation to the teacher,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the class, which are lower areas. The exa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showed that self-respect has a static relationship with all lower areas of school life and overall school life adaptation. However, no meaningful relationship was shown between the satisfaction about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and self-respect. Also,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grade, self-respect, the number of service utilization have an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But in this study,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which dealt with students who had used partial areas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students who were using all 4 areas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were selected as subjects.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basic data has been offered for establishment of a policy on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in middle schools in the future.

▲주제어(Key Words) : 교육복지서비스(educational welfare service),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Eduzone programme), 학교생활 적응(school life adaptation),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중 일부로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In-Hwa Choi, Department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ji University, 50-3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Tel: +82-10-8440-0520, E-mail: ichoi@mju.ac.kr

I. 문제제기

지속되는 경제 불황 및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불만족, 개인의 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자기 파괴'라는 극단적 선택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1위 수준이라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문제는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렸다.

2000년 14%였던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이 2009년 28%로 급증하였으며, 15-18세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체 청소년 자살률의 81.36%에 이르고 있다(NECA, 2012). 또한, 청소년의 자살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위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주요위험요인으로 가정요인, 경제요인, 학교요인 등을 꼽고 있다(NECA, 2012).

학교는 청소년을 건강한 미래세대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공적기관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학교는 다양한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건강한 청소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 서비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복지서비스는 2003년부터 실시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학습능력증진, 문화·체험활동, 심리·정서지원, 복지프로그램 지원, 영유아지원, 지역연계)을 시행하고 있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교육복지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 해결과 문제행동을 예방을 위해 학력향상, 정서발달, 심성계발, 건강증진,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J. H. Joo, 2009)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즉,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교육복지서비스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 발굴하여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교생활적응에 실패하여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

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력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높아진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자살 뿐 아니라 모든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은 원만한 대인관계형성과 문제해결능력향상, 스트레스 및 자기 통제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와 학생들의 교육복지서비스 이용특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용특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앞으로의 교육복지서비스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중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기이며, 발달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시기로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특히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의 적응을 위해 가족, 친구,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받게 되며, 인간이 발달 단계상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다른 시기에 비해 스트레스도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이상과 현실사이의 모순을 찾게 되고 현실부정, 도피 등 극단의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시기이며, 불안의 시기이기도 하다.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갈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반항적 태도와 독립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는 의존적 태도가 결합된 이중적 태도라 할 수 있다(Y. H. Hwang, 2009).

이러한 혼돈 속에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및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데 가정환경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청소년자신의 내부적인 강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저마다 다른 결과를 빚어내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자신의 내부적 강점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며, 자아존중감이 내부적 강점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가치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심리특성이며(C. S. Kim, 2009),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업동기가 높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 될수록, 충동과 공격성향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Hush, 1964 as cited in K. Jung, 2004).

위의 설명과 같이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아동 및 소년들을 청소년이라 칭하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 이하의 자', 소년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인자'를 소년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 따라 그 세부적인 사항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 함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시기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정한 까닭은 그들이 비로소 사회 통념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라는 6년 동안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중학교라는 새로운 틀에 적응해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서비스(교육복지 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는 중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또는 가족적인 문제나 친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상의 문제, 그리고 학교적응의 무제 등을 가진 경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K. J. Baek, 2007).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중학교 교육의 의무교육이 되어, 중학교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되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실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말 현재, 면제 및 제외를 포함한 전체 중학교 학습 유예자 수는 16,000여명(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s, 2014)에 이를 정도로 학교부적응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의 학교부적응문제는 단위 학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어 국가적으로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가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 중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 가족형태)과 이용 특성(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개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고,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용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교육복지 서비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2009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위와 같은 학교부적응 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육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교육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J. H. Joo, 2009; J. Kim, 2007; M. J. Kim, 2010)에서 지속적인 교육복지서비스의 경험은 청소년의 내·외적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교육복지사업이 지속되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학생개인의 변화에 교육복지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W. J. Park, 2010),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누적될수록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여(J. H. Joo, 2009), 교육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서비스를 학습, 문화, 심리정서, 복지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도움이 됐다고 느낄수록,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교육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도출한 연구(M. J. Kim, 2010)와 교육복지서비스의 표준화와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법제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K. H. Lee, 2009).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를 학교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이 학습능력의 향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과 복지분야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개별 아동, 청소년의 자아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교에 대한 기대 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Y. K. Sung, B. B, Baek. K. H, Yoon, 2008).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S. H. Choi, 2010; T. S. Jung, 2011; S. J. sung, 2010)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들(M. H. Han, 2007; Y. H, Hwang, 2009; C. S. Kim, 2009; Y. M. Kim, 2010)이 있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점 요인을 찾아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S. J. sung, 2010),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S. H. Choi, 2010), 지역사회 지원과 가족의 친밀감(T. S. Jung, 2011), 교사의 지지와 자아존중감(S. H. Choi, 2010) 등이 있었다.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에는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S. D. Kang, 2008; Y. M. Kim, 2010), 학교사회복지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려는 시도(M. H. Han, 2007)도 있었다. 이러한 시도에서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횟수가 학교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M. H. Han, 2007), 서비스의 참여유무와 참여기간은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M. J. Kim, 2010).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Y. H, Hwang, 2009; S. D. Kang, 2008; M. J. Kim, 2010; Y. M. Kim, 2010; J. H, Shin, 2010), 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고(S. H. Choi, 2010),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적응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Y. H, Hwang, 2009)도 있었으나, 성별, 학년별로는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라 유의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J. H, Shin, 2010; S. D. Kang, 2008). 교육복지서비스의 참여유무, 이용기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M. H. Han, 2007; M. J. Kim, 2010)도 있어,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누적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J. Kim, 2007)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복지 서비스의 여러 영역 중 일부영역에서의 효과만 입증하려는 연구 또는 일부 영역만 이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복지 서비스 전 영역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영역을 이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적응과 그들의 정신건강에

주요 원인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복지 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 가족형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특성(이용기간, 이용 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교육복지 서비스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 가족형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이용 특성(이용기간, 이용 개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강서구 및 양천구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학교의 선정은 강서구 및 양천구에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개 중학교 중 3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4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대상학생은 해당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복지서비스의 모든 프로그램 영역(학습지원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200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84명(42%), 여자 116명(58%)이고, 학년별 구성은 1학년 59명(29.5%), 2학년 53명(23.5%), 3학년 88명(44%), 가족 형태별로는 양친가정 136명(68%), 비양친가정 64명(32%)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육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변인들을 분석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으로서 개인적 특성 3문항,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용기간 및 이용이유 2문항과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개수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별 이용 여부 24문항, 만족도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30문항의 총 9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는 성별과 학년, 가족의 형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은 M. H. Han(2007)의 연구내용을 참조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J. E. Kim, 2008; K. M. Lee & M. S. Kim, 2008; J. H. Shin, 2008)에서 사용된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홈페이지(<http://eduzone.kedi.re.kr>)에 게시된 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고, 이를 아동·청소년복지전공 교수 1인과

실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3인에게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점검받았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 S. Kim(2009)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참여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 사용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 본 T. Y. Kim(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93년 제작된 이래, 1995년, 2000년에 타당도 검증 및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 아동·청소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학교생활적응을 수업적응 5문항, 친구적응 6문항, 생활적응 5문항, 환경적응 6문항, 교사적응 8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방법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일까지 교육복지

Table 1. Composition of Research Tool & Credibility Reliability

Category		Question numbers/details		Cronbach's a
General	Gender, Grade, Form of family		3	-
	special quality of use	using period, reason of use	2	-
	studying support program			
Educational welfare service	psychology-emotion support program	using yes or no	24	-
	culture-experience program			
	welfare support program			
	studying support program			
	psychology-emotion support program	satisfaction	24	.839
	culture-experience program			
School life adaptation	welfare support program			
	adaptation to class	3, 8, 13, 18, 26	5	.768
	adaptation to friend	4, 9, 14, 20, 28, 29	6	.788
	adaptation to life	5, 10, 15, 22, 30	5	.814
	adaptation to environment	1, 6, 11, 16, 21, 24	6	.866
	adaptation to teacher	2, 7, 12, 17, 19, 23, 25, 27	8	.925
	subtotal		30	.957
Self-respect	positive question	1, 2, 4, 6, 7	5	.660
	negative question*	3, 5, 8, 9, 10	5	
Total			93	

서비스의 4가지 주요 프로그램 영역(학습 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경험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내용을 수정하고, 교육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실무 전문가 3인과 아동·청소년 복지 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011년 11월 7일부터 2011년 11월 16일까지 연구를 허락한 4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을 통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10부로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설문 10부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Data Editor 19 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증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교육복지서비스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특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본 설문은 조사대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소득층에 속하여 교육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속하는 학생들 중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수는 모두 210명으로 중 누락 등의 사유로 불성실하게 기재된 10명의 응답결과를 제외한 총 20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200명 중, 남학생은 84명(42%), 여학생은 116명(58%)로 나타났으며, 1학년은 59명(29.5%), 2학년은 53명(26.5%), 3학년은 88명(44%)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는 양친 모두와 지내는 학생이 136명(68%)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비양친가정은 64명(32%)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환경적응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 p<.05$). 남자 중학생의 환경적응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	Frequency(%)
Gender	Boys	84	42.0
	Girls	116	58.0
Grade	first year student	59	29.5
	second year student	53	26.5
	third year student	88	44.0
Form of family	parents	136	68.0
	parentless family	64	32.0

Table 3.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ender

	Gender	n	score range	M	SD	t
adaptation to class	Boys	84	5-25	15.82	4.29	.41
	Girls	116		15.59	3.74	
adaptation to friend	Boys	84	6-30	21.98	4.81	.46
	Girls	116		21.61	6.06	
adaptation to life	Boys	84	5-25	18.38	4.11	1.49
	Girls	116		17.58	3.50	
adaptation to environment	Boys	84	6-30	20.70	5.07	2.48*
	Girls	116		18.89	5.12	
adaptation to teacher	Boys	84	8-40	27.38	7.39	1.54
	Girls	116		25.77	7.22	
Total	Boys	84	30-150	104.26	22.30	1.16
	Girls	116		99.43	21.23	

* $p < .05$

Table 4.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School Year

	school year	n	score range	M	SD	F	Scheffe
adaptation to class	first year student	59	5-25	14.6	3.5	7.07**	third year student > first year student
	second year student	53		15.0	3.5		
	third year student	88		16.8	4.3		
	subtotal	200		15.7	4.0		
adaptation to friend	first year student	59	6-30	20.2	4.6	4.31*	third year student > first year student
	second year student	53		21.6	7.6		
	third year student	88		22.9	4.4		
	subtotal	200		21.8	5.6		
adaptation to life	first year student	59	5-25	17.2	3.9	8.93***	third year student > first year student
	second year student	53		16.7	3.7		
	third year student	88		19.1	3.5		
	subtotal	200		17.9	3.8		
adaptation to environment	first year student	59	6-30	19.2	5.5	7.28**	third year student > second year student
	second year student	53		17.8	4.8		
	third year student	88		21.1	4.8		
	subtotal	200		19.7	5.2		
adaptation to teacher	first year student	59	8-40	23.9	7.3	7.84**	third year student > first year student
	second year student	53		25.9	7.9		
	third year student	88		28.5	6.3		
	subtotal	200		26.4	7.3		
Total	first year student	59	30-150	95.03	21.44	8.86***	third year student > first year student
	second year student	53		97.02	21.50		
	third year student	88		108.44	20.28		
	Total	200		101.46	21.76		

* $p < .05$, ** $p < .01$, *** $p < .001$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 전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8.86, p<.001$), 3학년(108.44), 2학년(97.02), 1학년(95.03) 순으로 전체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학년과 1, 2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수업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7.07, p<.01$), 3학년(16.8), 2학년(15.0), 1학년(14.6) 순으로 수업적응 점수가 높았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학년과 1, 2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 친구적응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4.31, p<.05$), 3학년(22.9), 2학년(21.6), 1학년(20.2) 순으로 친구적응 점수가 높았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학년과 1학년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적응에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8.93, p<.001$), 3학년(19.1), 1학년(17.2), 2학년(16.7)의 순으로 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학년과 2학년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 교사적응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7.28, p<.01$), 3학년(28.5), 2학년(25.9), 1학년(23.9)의 순으로 교사적응 점수가

높았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학년과 1학년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가족형태는 부모가 모두 있는 양친가정과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등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외의 형태는 비양친가정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양친가정과 그렇지 않은 비양친가정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조사대상자의 교육복지 이용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미만 경험한 학생들이 64명(32%),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경험한 학생들이 46명(23%),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이 90명(4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 개수는 최소 4개에서 최대 24개이며, 1, 2, 3학년 평균 12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서비스 이용 개수(1, 2학년 평균 이용 개수 10개, 3학년 평균 이용 개수 14개)를 기준으로 4개부터 9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하' 집단(76명, 38%)와 10개부터 14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 집단(57명, 30.5%), 15개

Table 5.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Form of Family

	form of family	n	score range	M	SD	t
adaptation to class	parents	136	5-25	15.49	3.82	-1.04
	parentless family	64		16.11	4.28	
adaptation to friend	parents	136	6-30	21.89	5.80	0.46
	parentless family	64		21.50	5.04	
adaptation to life	parents	136	5-25	17.91	3.53	-0.02
	parentless family	64		17.92	4.30	
adaptation to environment	parents	136	6-30	19.38	4.96	-1.07
	parentless family	64		20.22	5.59	
adaptation to teacher	parents	136	8-40	25.86	7.30	-1.65
	parentless family	64		27.69	7.26	
Total	parents	136	30-150	100.53	20.50	-0.88
	parentless family	64		103.44	24.28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상' 집단(67명, 31.5%)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이용 개수별 집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학생들의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Table 6>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교육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고자 F검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개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개수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상(76명, 38%), 중(57명, 30.5%), 하(67명, 31.5%)의 세 집단으로 나눈 후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6.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Using Period

	using period	n	score range	M	SD	F
adaptation to class	less than one year	64		15.27	4.04	1.71
	more than one year	46	5-25	15.15	3.81	
	less than two year	90		16.26	3.98	
	more than two year	200		15.69	3.97	
adaptation to friend	less than one year	64		20.97	5.13	1.13
	more than one year	46	6-30	22.52	7.55	
	less than two year	90		21.94	4.57	
	more than two year	200		21.77	5.56	
adaptation to life	less than one year	64		17.77	3.76	2.06
	more than one year	46	5-25	17.09	3.61	
	less than two year	90		18.44	3.83	
	more than two year	200		17.92	3.78	
adaptation to environment	less than one year	64		19.58	5.21	.20
	more than one year	46	6-30	19.31	4.67	
	less than two year	90		19.88	5.42	
	more than two year	200		19.65	5.17	
adaptation to teacher	less than one year	64		25.52	7.40	1.09
	more than one year	46	8-40	26.17	6.97	
	less than two year	90		27.24	7.43	
	more than two year	200		26.45	7.32	
Total	less than one year	64		99.09	21.93	.96
	more than one year	46	30-150	100.24	21.57	
	less than two year	90		103.77	21.76	
	more than two year	200		101.46	21.77	

Table 7. School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rvice Utilization

		n	Frequency(%)	score range	M	SD	F	Scheffe
adaptation to class	low (less than 9 programs)	76	38		14.91	3.80	2.38	
	middle (more than 10, less than 14 programs)	57	30.5	5-25	16.16	3.43		
	top (more than 15 programs)	67	31.5		16.16	4.49		
	subtotal	200	100		15.69	3.97		
adaptation to friend	low (less than 9 programs)	76	38		21.16	6.50	2.08	
	middle (more than 10, less than 14 programs)	57	30.5	6-30	23.02	4.17		
	top (more than 15 programs)	67	31.5		21.39	5.33		
	subtotal	200	100		21.77	5.56		
adaptation to life	low (less than 9 programs)	76	38		17.12	3.59	2.89	
	middle (more than 10, less than 14 programs)	57	30.5	5-25	18.58	3.28		
	top (more than 15 programs)	67	31.5		18.25	4.24		
	subtotal	200	100		17.92	3.78		
adaptation to environment	low (less than 9 programs)	76	38		18.34	5.21	4.12*	
	middle (more than 10, less than 14 programs)	57	30.5	6-30	20.26	4.92		
	top (more than 15 programs)	67	31.5		20.61	5.10		
	subtotal	200	100		19.65	5.17		
adaptation to teacher	low (less than 9 programs)	76	38		24.17	7.31	6.24***	
	middle (more than 10, less than 14 programs)	57	30.5	8-40	27.91	6.79		middle > low
	top (more than 15 programs)	67	31.5		27.78	7.21		top > low
	subtotal	200	100		26.45	7.32		
Total	low (less than 9 programs)	76	38		95.70	22.19	4.55**	
	middle (more than 10, less than 14 programs)	57	30.5	30-150	105.93	17.80		middle > low
	top (more than 15 programs)	67	31.5		104.19	23.16		top > low
	Total	200	100		101.46	21.76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개수에 따른 전체 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4.55, p<.01$),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개수가 '중'인 집단의 학생(105.93), '상'인 집단의 학생(104.19), '하' 집단의 학생(95.70)의 순으로 학교생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인 집단과 '하' 집단,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수업적응과 친구적응, 생활적응에서는 이용개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용개수에 따른 환경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12, p<.05$), '상' 집단(20.61), '중' 집단(20.26), '하' 집단(18.34)의 순으로 환경적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후검증에서는 '중' 집단과 '하' 집단, '상' 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적응에서도 이용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24, p<.001$), '중' 집단(27.91), '상' 집단(27.78), '하' 집단(24.17)의 순으로 교사 적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사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3. 조사대상자의 교육복지 서비스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다음 <Table 8>은 조사대상자의 교육복지 서비스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8>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복지서비스의 4가지 영역(학습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복지서비스의 전체 만족도와 전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통계상 유의함을 알 수 있다($r=.270, p<.01$).

교육복지서비스의 하위영역별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습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관계는 교사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r=.258, p<.01$), 생활적응($r=.246, p<.01$), 수업적응($r=.220, p<.01$), 환경적응($r=.210, p<.01$)의 순으로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학습지원만족도와 친구적응의 관계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 전체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24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에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 생활적응 하위영역별 관계도 살펴봐왔다. 그 결과는 환경적응($r=.213, p<.01$)과 교사적응영역($r=.237, p<.01$)에서 통계상 유의함이 나타났고,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Table 8. Correlatio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 Program, School Life Adaptation and Self Respect

	adaptation to class	adaptation to friend	adaptation to life	adaptation to environment	adaptation to teacher	total	self respect
satisfaction of studying support program	.220**	.094	.246**	.210**	.258**	.243**	.068
satisfaction of psychology-emotion support program	.135	.058	.100	.213**	.237**	.187**	-.055
satisfaction of culture-experience program	.161*	.118	.236**	.238**	.275**	.249**	.038
satisfaction of welfare support program	.104	.062	.129	.218**	.268**	.199**	.007
Total	.190**	.100	.214**	.272**	.321**	.270**	.014
self respect	.274**	.388**	.400**	.203**	.208**	.337**	1

* $p < .05$, ** $p < .01$

서는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 전체와 유의한 상관관계($r=.18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관계를 알아본 결과 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만족도는 친구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영역에서 통계상 유의함이 나타났다. 교사적응($r=.275, p<.01$), 환경적응($r=.238, p<.01$), 생활적응($r=.236, p<.01$) 및 수업적응 하위 영역에서는 통계상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r=.161, p<.05$). 또한,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전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도 통계상 유의하게($r=.249, p<.01$) 나타났다.

복지-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관계를 살펴보면, 환경적응($r=.218, p<.01$)과 교사적응영역($r=.268, p<.01$)에서만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은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전체 만족도와 전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통계상 유의한 결과($r=.199, p<.01$)가 나타났다.

교육복지서비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의 5가지 하위영역 중 친구적응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적응($r=.321, p<.01$), 환경적응($r=.272, p<.01$), 생활적응($r=.214, p<.01$), 수업적응($r=.190, p<.01$)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교육복지 서비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만족도와 전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r=.270, p<.01$).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

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도 각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와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간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위영역 중에서도 특히 생활적응부분이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r=.400, p<.01$), 친구적응($r=.388, p<.01$), 수업적응($r=.274, p<.01$), 교사적응($r=.208, p<.01$), 환경적응($r=.203, p<.01$)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전체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도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r=.337, p<.01$). 위의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체 학교생활적응 뿐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영역인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 환경적응, 교사적응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나, 자아존중감과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특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용특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가족

Table 9.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General Characteristics, Special Quality of Use and Self Respect (N=200)

		B	SE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4.281	2.851	-.097
	Grade	6.152	1.838	.239**
	form of family	-.720	1.871	-.028
using characteristics	using period	-1.429	1.076	-.094
	number of using educational welfare service program	.591	.238	.168*
	self respect	.979	.210	.306***
	constant		63.472	
	R ²		.209	

* $p < .05$, ** $p < .01$, *** $p < .001$

형태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9, p<.01$). 조사대상자의 교육복지서비스 이용특성은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68, p<.05$), 자아존중감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beta=.306,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 심리적 문제에 많이 노출되는 중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별, 학년, 가족형태, 이용 기간 및 이용한 서비스의 개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교육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교육복지서비스의 모든 영역(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복지-지원)을 이용하는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210부를 회수하여 부실 및 누락 응답된 질문지 10부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하였으며, 교육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의 일반특성과 이용기간, 이용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개수 등 이용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교육복지 서비스의 각 영역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교육복지서비스 이용특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환경적응영역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구(S. H. Choi, 2010; Y. M. Hwang, 2009; Y. H. Hwang, 2009; J.

H. Joo, 2009; Y. M. Kim, 2010; H. K. Park, 2010)와 일부 다른 결과로서 환경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력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한 연구(S. D. Kang, 2008)와 일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서는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통계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Y. H. Hwang, 2009; M. Y. Jung & H. J. Moon, 2007)나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Y. M. Kim(2010)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나, 교육복지서비스를 가장 오래 경험한 3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서 친구 요인, 교사 요인에 따른 차이가 다른 학년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Kim, Y. H., Choi, K. I., & Noh, H. (2005)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친가정과 비양친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부모가 존재하는 양친가정이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올 것으로 연구된 연구결과(J. H. Shin, 2010)와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나, 가족형태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M. H. Han(2007)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둘째, 교육복지서비스 이용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기간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용횟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M. H. Han, 2007),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누적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J. Kim, 2007)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이야기한 누적된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기간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기간 뿐 아니라 교육복지서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여부도 파악하여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개수를 파악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개수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통계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교육복지서비스의 4가지 영역(학습지원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 복지-지원프로그램) 모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전체 학생의 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개수는 평균 12개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교육복지서비스의 세부프로그램 이용개수를 3개의 집단('하': 76명, 38%, '중': 57명, 30.5%, '상': 67명, 31.5%)로 분류하여, 각각의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개수에 따른 전체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수업적응과 친구적응, 생활적응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경적응과 교사적응에서 프로그램 이용 개수'중'집단과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이 통계상 유의하게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수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횟수와 학교생활적응이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M. H. Han(2007)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누적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J. Kim, 2007)와 합치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내용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의 개수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교육복지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복지 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교육복지서비스의 4가지 프로그램 영역(학습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복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영역(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 환경적응, 교사적응)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복지서비스의 4가지 프로그램 영역(학습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복지-지원프로그램)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수업적응, 생활적응, 환경적응, 교사적응은 통계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만족이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하다고 연구한 K. H. Kim(2011)의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이 표준화되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각 영역별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적응도가 교육복지서비스의 만족도와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이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구적응 영역은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친구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의 주요한 지지요인으로 나타났던 연구결과(H. J. Moon & M. Y. Jung, 2007)나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상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던 연구(E. S. Moon, 2002; S. D. Kang, 2008; Y. M. Kim, 2010)와는 다른 결과이나, 교육복지서비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에서 다른 요인들(교사, 상담전문가)의 지지보다 친구의 지지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Kim, Y. H., Choi, K. I., & Noh, H, 2005)와는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교육복지서비스의 시행년도가 오래 되어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친구적응이 교사적응이나 환경적응, 수업적응, 생활적응에 대한 요인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영역(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 환경적응, 교사적응)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은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전체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 M. H. Han(2007)의 연구와 C. S. Kim(2009)의 연구, 그리고, S. J. Sung(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교육복지 서비스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용특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년과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개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E. S. Kim, 2009)와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수가 많은 현실을 미루어 볼 때,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저학년의 경우라 할지라도,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간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지역적 제한점과 함께, 조사대상학생의 인원을 200명에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지역단위나 전국단위의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조사통계기법만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교육복지서비스의 네 가지 프로그램 영역(학습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복지-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이유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요인의 하나인 경제적 요인을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 요즘의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뿐 아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복지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이용하는 일부 중학생에 대한 제한적인 몇 가지 특성에 대한 연구만을 진행하였기에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 전 영역을 모두 이용하는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용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바,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에 유의하여, 앞으로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이용기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교육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생들의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추후 진행될 연구들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의 중단적 이용기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이용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정도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개수의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 자아상을 구축하고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모든 영역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접목될 수 있는 심리-정서지원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이 교육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의 대상을 한 가지 영역이나 일부 영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학습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체험활동, 복지-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교육복지서비스의 누적 이용기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복지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교육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효과적 이용기간에 대한 논의점과 교육복지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Baek, K. -J. (200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stress and school social work services : Based on the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yeonsu-gu and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Choi, S. -H. (2010). *Factors that have influences on adjustment of juvenile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Han, M. H. (2007). *A study on the Impact of school Social Welfare Services Use o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Hwang, Y. -H. (2009).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do, Korea.
- Hwang, Y. -M. (2009). *A study on life adjustment of school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youth activity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Jun, H. -J. (2007). *The effects of factor on adjustment in school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 Jung, K. (2004).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youth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35-252.
- Jung, M. Y., Moon, H. J. (2007).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37-54.
- Jung, T. -S.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hool adaptability of students in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the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cheongbuk-do, Korea.
- Joo, J. H. (2009).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project for the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the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juveni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S. D. (2009).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adolescent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 Dong University, Gangwon-do, Korea.
- Kim, E. -S. (2009).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users about supportive business in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5(4), 351-382.
- Kim, J. -E. (2008). *A study on the impact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 use o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K. H. (2011). Effects analyse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la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2(1), 1-21.
- Kim, K. H., & Lee, K. H. (1997).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2), 145-165.
- Kim, M. J. (2010).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for educational welfare program particip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 Kim, S. -O. (2005).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for delinquent prevention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G., Kim, H. R., Choi, S. H., & Cho, S. W. (2009). The effects of school social work service: 2007-2008 school social work project' co-sponsor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7, 51-80.
- Kim, S. -Y. (2009). *Adolescents' school lif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by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social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 Kim, S. (2007). *A study on the source of middle school student's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ungcheongbuk-do, Korea.
- Kim, Y. M. (2010). *A study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do, Korea.
- Kim, J. (2007).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zone plan on the student's self-concept and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4(3), 131-154.
- Kim, C. -S. (2009).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ttending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aid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T. -Y. (2008). *Children and adolescents' achievement through the internet game,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Choi, K. -I., & Noh, H. (2005). Social support and school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ose attending school with and without school social work servi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8, 31-60.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s. (2014). Present condition delay of study-middle school. Retrieved from http://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13&menuSeq=3894&publSeq=2&menuCd=59270&itemCode=02&menuId=1_4_12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The guide of eduzone programme. Retrieved from http://eduzone.kedi.re.kr/EZData/EduZone/UsBrdViv.php?LstCode=B_DATA&LstCary=B00317&LstNum1=1456
- Lee, H. -I. (2006). *A study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 school social work pract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5(3), 23-46.
- Lee, K. H. (2009).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zone pl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ee, K. M., Kim. M. S. (2008). A Validation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5(1), 27-40.
- Moon. E. S.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Nation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A study on regional ris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NECAIRB12-014)*. Seoul, Korea.
- Park, M. -R. (2010).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zone on the school adjustment of low-income children : Centered around chuncheon reg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8, 129-157.
- Park, W. -J. (2010). *Study on the change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oject : With the students of J middle school which is supported as the designated school by the education welfare project for the prio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in Ju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 Park. H. K. (2010). *A Study on the Impact of School Welfare Service Use on Consciousness of Social Welfare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Shin, J. H. (2010). *The Effects of Adolescents'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ungcheongbuk-do, Korea.
- Sung, S. J. (2010).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of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cheongbuk-do, Korea.
- Sung, Y. K., Baek, B. -B., Yoon, K. -H. (2008). A research on students' school-life satisfaction and effect of intensive support in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roject. *Journal of Korean education*.

접수 일 : 2014년 05월 19일
 심사 일 : 2014년 06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17일